

머리카락의 이미지로 표현되는 내면의 이야기를 담은 현대장신구 제작 연구

A Study on Contemporary Jewelry using Image of Hair which contains Inner Thoughts

이 진아
Jina Lee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금속·주얼리디자인학과 박사과정
Ph.D course, Graduate School of Techno Design, Kookmin University

중심어 : 머리카락, 머리모양, 내면, 현대 장신구, 내러티브장신구
keyword : Hair, Hair form, Inner thoughts, Contemporary Jewelry, Narrative Jewelry

목차

1. 서론
 - 1.1. 연구목적
 - 1.2. 연구방법 및 범위
 2. 머리카락이 갖는 의미에 관한 고찰
 - 2.1. 머리카락이 함축하는 역사적 의미
 - 2.2. 예술작품 속에 표현되어진 머리카락의 의미 분석
 - 2.3. 장신구에 적용된 머리카락의 사례
 3. 머리카락의 이미지를 응용한 현대장신구 제작
 - 3.1. 일상적 이야기를 표현하는 머리카락
 - 3.2.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머리카락
 - 3.3. 내면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머리카락
 4. 결론
- 참고문헌

ABSTRACT

There are many stories related to the shape of the hair and other related stories. These stories are included even in the ancient legends, all the way to artistic works including novels, and paintings. It even plays the role of consolidating the conviction to stand up against the social issues of the modern age. Hair strand with mystic and powerful meaning that includes basic significance and symbol and the stories that start from its form hold significant value as the sources for artworks as well. However, because many horror films today used it as the source frequently, the image of hair strand faded, and only its horror symbol increased. As such, hair strand only appear in some paintings among the fields of the contemporary art, and there are many instances in which it is not used as a source. Accordingly, this research seeks to present the direction for new design so that hair strand can cast away this fragmented image by configuring interesting stories on the hair strand that shows the emotion of the human beings that are hidden for now since they were not adopted, and the interesting stories that is manifested by its form in a new manner and by designing diverse ornaments that suits it.

요약

머리카락과 그에 관한 이야기는 고대 신화에서부터 소설, 그림과 같은 예술작품, 현대 사회문제에 맞서 결의를 표시하는 수단으로써의 역할까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는 머리카락이 기본적으로 내포하는 신비롭고 강력한 상징적 의미와 다양한 형태로부터 시작되는 흥미로운 이야기거리가 예술작품의 소재로써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 공포영화들의 잦은 소재 채택으로 인해 현재 머리카락의 이미지는 퇴색되어 공포의 상징성만이 강해졌다. 이로 인해 현대미술분야 중 회화에서만 이를 소재로 하는 작품이 간혹 나타날 뿐 그 외의 분야에서는 디자인의 원천으로 채택되는 경우가 흔치않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간의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 할 수 있는 주제로써의 머리카락과 머리카락이 형성하는 형태가 나타내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디자인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다양한 내면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내러티브 장신구로 디자인 함으로써 머리카락이 가지고 있는 단편적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서론

1.1. 연구목적

20세기 중반부터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한 현대장신구(contemporary jewelry)¹⁾라는 흐름은 현재까지 다양한 공예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금속공예분야에서는 대량생산의 산업디자인 제품들에 잠시 빼앗겼던 입지를 되찾는데 큰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대장신구 작가들은 다양한 재료적 기법적인 실험 뿐 아니라 개별적인 작가 자신의 정신세계의 표현에 열중하며 이는 인간내면의 감성적인 부분을 이야기와 결합시켜 표현하는 내러티브 장신구(narrative jewelry)²⁾의 형태로 승화되어 작가의 내면을 표현하는 개념적인 장신구로 제작된다. 내러티브 장신구의 제작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현대장신구의 흐름에 따라 그 안에서 작가들에게도 보다 개성적이며 남다른 이야기 혹은 보다 개념적으로 장신구의 정체성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찾을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보다 다양한 디자인 소재를 개발해 낼 수 있다. 그 중 가장 가까운 주변 소재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신체의 일부분인 머리카락이다. 인간의 머리에서부터 뻗어 나오는 머리카락은 예로부터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임으로써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는데 탁월한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형태 또한 표현에 따라 다채롭게 적용 가능한 장점이 있어 현대장신구의 흐름에 맞는 내러티브 장신구 디자인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머리카락은 말하지 않아도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머리카락이라는 행위로 표현가능하게 하며 생물학적 의미에 비추어 머리카락의 기능과 성질을 관찰해 보았을 때에도 인간의 건강과 기분, 날씨와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과 같은 신비로

운 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인간과 머리카락간의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긴밀한 상호작용이 있다고 볼 수 있게 한다. 이렇듯 인간의 내면에 대한 머리카락과 형태의 흥미로운 역할은 머리카락이 고대 신화의 이야기깃거리로 등장할 수 있게 하였고 예술의 소재로써 현대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는 도구로써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머리카락이라는 소재는 공포영화의 주 소재로 등장하는 등의 무섭고 혐오스러운 이미지만을 강하게 남기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아온 실정이다. 이로 인해 머리카락은 생활과 관련된 디자인으로의 활용과는 멀어지고 회화나 영화와 같은 일부 분야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머리모양(머리카락이 형성한 이미지)을 이용하여 머리카락이 갖고 있는 이야기깃거리로써의 장점을 파악한 후 머리모양이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를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인간 내면의 이야기를 이미지에 접목시켜 현대장신구의 흐름에 맞는 내러티브 장신구의 제작에 머리카락이 하나의 흥미로운 소재로써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장신구의 장르와 형태의 범위는 현대장신구 범주 안의 내러티브 장신구의 디자인으로 한정하였다. 형태는 한 가닥의 굵직한 확대나 개별적 묘사가 아닌 머리카락이 모여 형성하는 전체적인 형태의 이미지(머리모양)로 구상하였으며 형태와 이야기간의 어울림에 중점을 두어 디자인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머리카락이 함축하는 일반적인 의미와 고대신화와 예술작품에 표현된 머리카락의 의미를 분석하여 머리카락이 갖는 기본적인 의미의 고찰을 선행하였다. 다음으로는 선행한 의미의 고찰을 바탕으로 머리카락의 이미지에 적용할 수 있는 인간 내면으로 부터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수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내면의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머리모양의 형태를 드로잉으로 구체화 하여 목걸이, 브로치, 반지의 형태로 제작하였다. 작품 제작을 위한 재료는 99.9% 순은을 기본 재료로 하여 92.5%의 정은과 폴리머클레이, 칠보, 유리 물감을 사용하였다. 머리카락을 보다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기법은 금속공예기법 중 필리그리기법(filigree technique)³⁾을 사용하였다.

1) 전용일, 「Ornament and Illusion - Spectrum of Contemporary Jewelry」, 국립현대미술관, 2013, p.10

전용일(2013)은 현대장신구(contemporary jewelry)가 1960년대부터 유럽의 작가들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재료적 한계를 뛰어넘는 모험과 실험을 감행하여 동, 철 등의 비교적 저렴한 금속의 사용에서부터 종이, 나무, 섬유, 가죽 등의 자연재료, 플라스틱, 실리콘, 에폭시 등 인공 합성재, 각종 산업 건축 자재, 파운드오브제, 사진, 디지털이미지에 이르는 다양한 재료의 확장을 바탕으로 현대미술의 문맥 속에서 장신구를 창작의 매개체로 활용하며 점차 금속공예분야에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하나의 장르로써 부각되고 있다고 하였다. 더불어 한국의 경우 유행을 통해 서구의 현대 금속공예를 국내에 이식한 1세대 금속 공예가들에 의해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그들은 장신구의 모태가 되는 금속공예의 전반적 기술과 방법론, 조형성을 작품과 교육을 통해 소개했다고 하였다. 또한 이것이 한국의 전통금속공예와 융합하면서 장신구를 비롯한 한국 현대금속공예로서 정착되었다고 하였다.

2) 전용일, 앞의 책, p.11

전용일(2013)은 내러티브 장신구(narrative jewelry)는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구상적 묘사를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는 장신구 장르의 한 갈래로서 작가의 내면을 표현하거나 장신구의 정체성을 묻는 방식으로 '개념과 이야기'를 진술하려는 경향이 특징이라고 하였다.

3) 전용일, 「금속공예기법」, 미술문화, 2006, pp.139 ~142을 정리함 필리그리기법(filigree technique)은 순은사 또는 금사를 이용하여 금속의 표면을 장식하는 금속공예의 전통적인 표면 세공 및 장식기법이다. 동성분이 포함된 접착제를 도포하여 열을 가하면 바탕금속과 금속선 사이가 최저의 융점에 이르러 두 금속 간 표면에서 유тек틱 접합이 이루어져 땀 없이 바탕금속과 금속사가 서로 붙는다.

2. 머리카락이 갖는 의미에 관한 고찰

2.1. 머리카락이 함축하는 역사적 의미

머리카락은 고대인들에게 개인의 영혼이 거주하는 머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방패라 여겨졌으며 중세 사람들은 뇌에서 영혼의 수액을 공급받아 피부를 뚫고나온 식물로 생각했다.⁴⁾ 서양의 가톨릭 수도회의 수사들 중에는 가시면류관 모양의 삭발⁵⁾을 통해 신을 위한 희생과 마음의 정화 등 욕구와 욕망을 절제하는 마음가짐의 상징으로 삼았으며 수녀들 또한 머리카락을 허영과 세속의 상징으로 여겨 코이프(coif)⁶⁾를 쓰는 것으로 머리카락을 가리고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동양의 불교에서도 머리카락을 세속적 욕망을 상징하는 무명초라 하여 인간사 번뇌를 자른다는 의미로 삭발을 하였다⁷⁾. 이와 같이 머리카락은 시대적으로는 영혼이 깃들어있는 영험한 것으로 종교적으로는 속세와 번민, 욕망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어 온 머리카락은 현대에 이르러 유전학의 발달로 인해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개인 식별의 도구로 인식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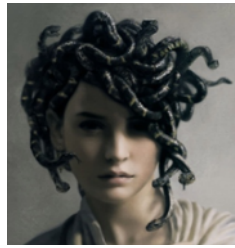
<그림 1> 중세 시대 가발 Wig



<그림 2> 조선시대 다리

중세의 머리카락의 의미는 신분, 지위, 귀천 등 사람을 직접 표현 한다고 할 만큼 중요하게 여겨져 하나의 장신구화 되어 발달하였다. 서양에서는 모든 생활면에서 장식, 의례, 연예, 무대, 법관용 등 다양한 상황과 직업에 맞추어 <그림 1>과 같이 착용자를 직접 표현하는 가발(wig)이 발달하였다.⁸⁾ 우리나라에서도 머리술이 적은 여자들은 <그림 2>와 같은 다리⁹⁾를 달아 쪽을 지었으며 조선시대 정조 때에는 머리모양을 크게 꾸미는 것이 유행 하여 다리 값이 비싸져 국법으로 다리의 사용을 제한하였다고 한다.¹⁰⁾ 신화와 이야기 속에서 머리카락은 아름다움과 힘을 찬양하기도 하고 공포의 상징이 되기도 하였다.

4) 마리 크리스틴 오주, 「머리카락」, 한용택 옮김, 시공사, 2005, p.11~15
 5) J.스티븐 랭, 「바이블 키워드」, 남경태 옮김, 들녘, 2007, p.24
 J.스티븐 랭(2007)은 어떤 가톨릭 수도회에서는 수사들이 가시면류관 모양으로 삭발한다. 정수리와 목덜미의 머리털을 밀고 머리털을 고리 모양으로 만들어 그리스도의 가시면류관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6) 라사라교육개발원, 「복식대사전」, 라사라, 1995, p.1171
 코이프(coif) : 수녀들의 두건
 7) 「승가기획_삭발」, 만불신문, 2005.
 8) 마리 크리스틴 오주, 앞의 책, p.103
 9) 라사라교육개발원, 앞의 책, p.124
 다리 : 여자들이 머리술이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해 덧 넣었던 땀 머리.
 10) 「다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 Index>.



<그림 3> 메두사 Med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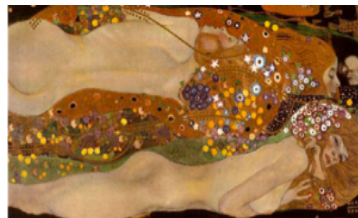


<그림 4> 삼손 Sam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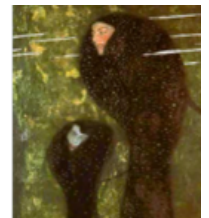
<그림 3>의 메두사는 그리스신화 중 오비디우스(Publius Ovidius Nas)의 이야기 속에서 원래 머리카락이 유독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너무 아름다워 바라보는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여인은 저주받아 바라보는 사람을 돌로 만드는 저주받은 힘을 가진 비운의 인물로 그려진다. 흉측한 뱀으로 변한 그녀의 머리카락은 저주로 상처 받은 그녀의 지옥같이 고독한 내면을 표현한다. 우리에게 힘이 센 사람의 대명사로 잘 알려진 <그림 4>의 삼손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그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었으나 원수민족의 딸인 데릴라와 사랑에 빠져 사랑에 눈이 먼 사이 그녀에 배신으로 그 머리카락이 잘려 눈이 뽑히고 원수민족의 노예가 된다. 이후 시간이 지나 머리카락이 다시 자란 삼손은 힘을 되찾고 복수한다. 이 이야기 속에서 삼손의 머리카락은 남성적 힘과, 생명력, 존재의식의 상징으로 그려진다. 이와 같이 머리카락은 인류사에 있어서 인간의 욕구, 욕망, 절제의 표현 도구이기도 하였으며, 그 상징성으로 신화와 이야기의 소재로도 꾸준히 적용 되어온 것을 알 수 있다.

2.2. 예술작품 속에 표현되어진 머리카락의 의미 분석

현대 예술에 등장하는 머리카락은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회화작품 속에서 생동감 있는 표현으로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 하는 등 인물의 표정에 생기와 깊이를 더하며 작품 속 인물을 넘어 작가의 심리와 감정까지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림 5> Water snakes2 중 일부, 구스타프 클림트 Gustav Klimt



<그림 6> Water sprite, 구스타프 클림트



<그림 7> Female nude lying on her stomach 에곤 실레 Egon Schie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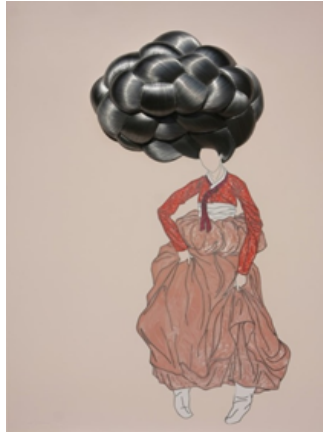
<그림 8> Self-portrait 에곤 실레

<그림 5, 6>의 작가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는 울동감 있고, 환상적인 색감으로 머리카락을 표현하여 여인의 신비로운 아름다움과, 젊음, 생명력을 표현했다. 에곤 쉘레(Egon Schiele)는 <그림 7, 8>과 같이 여인의 누드와 자신의 자화상속에서 시각적으로 강렬하게 머리모양을 표현하여 그가 그리는 머리카락의 생명력 넘치는 선은 몸의 움직임과는 또 다르게 그림 속 인물의 내면을 그대로 표현해낸다.

장신구에 나타난 머리카락의 사례를 살펴보면, 서양에서는 <그림 13, 14>와 같이 추모와 기념의 의미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의 사후 그의 머리카락을 이용하여 장식하거나 담고 있는 장신구¹¹⁾를 만들어 지니고 다니며 잃어버린 이를 기억했다.



<그림 9> Style-lady 加加, 박성철 2011



<그림 10> Style-lady 加加, 박성철 2009



<그림 11> 상처를 날려라, 요시자와 토모미 Yoshizawa Tomomi, 2009



<그림 12> 관계 맺기에 관하여, 요시자와 토모미, 2009

현대미술작가인 박성철은 <그림 9, 10>와 같이 조선시대 여인의 머리장식인 가체를 재해석하여 입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시대의 과열된 욕망을 과장된 머리 형태를 통하여 표현하였다. <그림 11, 12>의 작가 요시자와 토모미(Yoshizawa Tomomi) 또한 머리카락을 그림 속 인물의 감정을 드러내는 매개체로서 사용하였다. 일반적인지 않은 작품 속 머리 형태는 사실적인 묘사를 통하여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면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2.3. 장신구에 적용된 머리카락의 사례



<그림 13> Hair work jewelry



<그림 14> Hair work jewelry



<그림 15> Hairpin, 멜라니 빌렝커 Melanie Bilenker, 2006

현대장신구 작가 멜라니 빌렝커(Melanie Bilenker)는 <그림 15>와 같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이용하여 자신의 기억 속 이야기를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이용하여 그림 그리듯 사진적 이미지의 장신구로 만들어 자신의 소중한 일상까지 기억하고 보관하고자 했다.



<그림 16> Hair necklaces, 캐리 하울리 Kerry Howley, 2011



<그림 17> Hair necklaces, 캐리 하울리, 2011

인간에게 매력을 뽐내게 할 수 있는 도구의 하나로서 익숙한 머리카락은 몸에서 떨어져 나오는 순간 폐기처리 됨과 동시에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질이 된다. 현대장신구 작가 캐리 하울리(Kerry Howley)는 <그림 16, 17>과 같이 실제 몸에서 떨어져 나온 머리카락만으로 서로 꼬거나 엮어서 하나의 장신구를 만들어 낸다. 그녀는 매력과 혐오의 감정 사이에서 미묘한 연결선이 있음에 주목하였고, 이를 동시에 느끼게 할 수 있는 소재로서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표현해 낼 수 있는 머리카락을 소재로 선택하였다.

위와 같은 사례들에서 보여 지는 것과 같이 머리카락은 과거와 현대, 신화와 이야기, 평면 미술작품에서부터 현대장신구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장르의 한계 없이 상징적의미로서의 주제 및 소재로,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재료로서 다양한 방법으로 작가들에게 응용되어왔으며 머리카락과 그 형태로 표현 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무한히 열려있는 것을

11) Brett, Mary, 「Fashionable Mourning Jewelry, Clothing, & Customs」, Schiffer Pub, 2007, pp.105 ~ 117
Brett와 Mary(2007)은 추모와 기념의 의미를 갖는 장신구(Mourning jewelry)의 범위 안에 머리카락을 소재로 한 장신구를 Hair work jewelry 라고 하였다.

알 수 있다. 이는 이어지는 연구 결과물인 장신구에 적용되어 머리카락과 형태에서 기인하는 소재(이야기)들이 장신구화 되었을 때 가능한 다양한 디자인을 구상할 수 있도록 응용되었다.

3. 머리카락의 이미지를 응용한 현대장신구 제작

인간은 말을 하지 않아도 감정과 생각을 타인에게 드러낼 수 있다. 뇌는 감정과 생각에 따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신호를 몸 전체로 보내고 신호를 받은 몸은 이것을 ‘몸짓’이라는 또 다른 언어로 표현한다. 인간의 ‘몸짓’은 표정과 자세, 행동으로 표현되며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머리 손질을 하는 등의 외적인 행위로써 몸짓의 감정과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는 표현 도구로써 손쉽게 사용되어져왔다. 이 중 ‘머리손질’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속에 인간의 개성과 내면, 기분, 상황, 생각과 감정을 직접적이면서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 되어 인간 내면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표출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머리로부터 뻗어 나와 감정과 기분에 따라 손질을 거친 후 그에 알맞은 형태로 표현되는 머리카락과 머리모양을 디자인의 공통 기준으로 하였다. 디자인의 기준이 되는 머리모양은 보이지 않는 인간의 감정과 생각을 효과적으로 시각화 할 수 있도록 자유롭고 환상적인 형태로 드로잉 하였다. 디자인과 더불어 이야기를 구성할 때에는 머리카락과 관련된 연구자의 일상과 내면을 되짚어 보고, 책과 기사를 독서한 후의 감정 등을 머리카락과 관련한 이야기로 서술하여 내러티브장신구 장르의 현대장신구로 제작하였다. 결과물은 목걸이와 브로치 및 반지의 형태로 제작 하였으며 얇고 율동감 있는 머리카락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나선형¹²⁾을 주 형태로 얇은 금속선을 꼬거나 말아 표현하는 세밀한 금속 세공 기법인 필리그리기법을 이용하였다.



<그림 18> 장신구 제작의 구체화 및 전개 과정

12) 김연화 「나선형이 지닌 조형의구조적 법칙성과 형상 특징」, 한국디자인포럼 Vol. 30,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2011, p.87
김연화(2011)는 나선형이 지닌 조형의 형상 특성들은 시각적 생장성, 율동감, 방향성을 갖고 있으며 깊이감과 함께 공간감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특히 나선형은 운동의 특성과 성격을 가장 단순하게 요약해서 나타낼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그 자체의 미적 즐거움을 표현하는 대표적 사례가 된다고 논하였다.

3.1. 일상적 이야기를 표현하는 머리카락

인간은 외출 준비를 할 때 세수하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행위로써 머리손질을 한다.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도 몇 번씩 머리와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타인에게 보이는 자신의 이미지에 신경을 쓴다. 일상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머리를 감고 잠자리에 들며 하루를 정리한다. 이렇듯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일상 속에 머리카락과 관련한 행위들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특히 하루를 시작하거나, 다음 날의 재충전을 위해 목욕을 할 때, 머리를 감는 것과 같은 일상적 행위 속에서 머리카락과 관련한 이야기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림 19> 생각하는 사람, 종이에 펜



<그림 20> 생각하는 사람, 순은, 정은, 철보, 폴리머클레이, 면사

<그림 19>는 일상적 행위 가운데 머리를 감을 때의 상황을 표현한 드로잉으로 머리를 감을 때 무의식 적으로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순간을 포착하여 이미지와 하였다. 머리를 감을 때 비누거품과 함께 어우러진 머리카락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다양한 크기의 반복적인 나선형을 기본으로 전체적인 형태를 구성하였다. 머리카락 사이에는 언어기호 중 하나인 말줄임표와 느낌표의 형태를 삽입하여 무의식적인 생각들 가운데 갑작스럽게 기발한 생각이 떠오른 순간을 표현하였다. <그림 20>은 드로잉을 바탕으로 디자인과정을 거쳐 목걸이로 제작하였다. 드로잉에서 표현하고 있는 머리카락의 묘사와 더불어 인간의 얼굴 표현에도 나선형의 드로잉을 그려넣어 머릿속의 생각이 머리카락까지 연속되고 있는 것을 형상화 하고자 하였다. 필리그리기법으로 표현된 머리카락의 색은 황화칼륨 착색으로 표면의 세밀한 묘사가 보다 잘 표현 되도록 하였으며 느낌표와 말줄임표에는 청록색의 칠보를 올려 머리카락의 색감과 은은하게 구별 하였다.



<그림 21> 애수, 종이에 펜



<그림 22> 애수, 순은, 정은, 철보, 폴리머클레이

인간은 사회생활 속에서 느끼는 부정적 감정과 스트레스를 목욕이라는 일상적 행위를 통해 해소하기도 한다. <그림 21>은 욕조에 몸을 담그며 우울함과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일상적 행위와 함께 머리카락으로 표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이미지화 하였다. 욕조에 머리끝까지 몸을 담겼을 때 얼굴 위 물 표면에 떠올거리는 머리카락과 함께 서로 다른 크기의 공기방울들이 엉겨붙어있는 이미지가 모티브가 되었다.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크기의 타원과 정원의 나선 형태를 불규칙적으로 반복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22>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목걸이 줄과 펜던트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하였으며 이를 위해 목걸이 줄의 굵기와 길이, 질감을 고려하여 금속(99.9% 순은)선으로 뜨개질하여 제작하였다. 머리카락과 어우러진 공기방울의 표현 또한 필리그리기법을 응용하여 양각의 반구 형태로 제작하였으며 표면에 푸른색 계열의 투명 칠보를 올려 색감으로 고요한 욕조 안이라는 상황과 우울함의 감정을 동시에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림 23> 가면, 종이에 펜



<그림 24> 가면, 순은, 정은, 폴리머클레이, 큐빅 지르코니아

<그림 23>과 <그림 24>는 인간의 사회생활이라는 일상적 활동 속에 현대인이 하나 이상 지니고 있는 가면이라는 소재를 모티브로 디자인 하였다. 머리카락의 위치는 얼굴의 위치와 도치시켜 가면이 상징적으로 표현되도록 의도 하였다. 머리카락이 형성하는 커다란 형태는 직접적인 얼굴형의 가면이 아닌 돌출된 크고 작은 나선형들의 불규칙적인 조합으로 현대 인간의 복잡하고 불안한 심리와 내면의 가면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3.2.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머리카락

인간의 생각과 감정은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등 자신만의 여가시간에 가장 활발히 표현된다. 여가의 시간을 머릿속에 그려보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사색에 잠긴 얼굴과 일상에서의 정돈된 것과는 다른 자유롭고 편안하게 풀어진 머리카락과 몸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단락의 장신구에서는 인간의 여가 속에서 자유롭게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머리카락을 모티브로 하였다. 책과 신문기사 등을 읽은 후 느껴지는

연구자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여 글로 표현하였으며 이미지화를 거쳐 내러티브 장신구로 디자인 하였다.



<그림 25> 그리워, 하다, 종이에 펜



<그림 26> 그리워, 하다. 순은, 정은, 칠보, 폴리머클레이

강신주의 '철학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인문학서의 내용 중 나이가 들어 사라져 버린 젊음을 안타까워하는 감정과 인간 내면 깊이 존재하는 젊음에 대한 집착에 대한 이야기¹³⁾를 표현하는 단락이 있다. <그림 25>는 위 단락에 관한 생각과 느낌을 '비록 돌이킬 수 없는 그리운 젊은 시절이지만 그 축적된 시간은 추억이 되고 인간은 추억을 상기시키며 살아간다.'는 연구자 내면의 이야기로 재해석하고 머리카락이 표현 할 수 있는 형태로 시각화 한 드로잉이다. 추억의 상징성과 그리움의 감정은 디자인의 모티브가 되었다. 가운데 위치한 커다란 정원의 나선 형태는 생각에 잠긴 현재를 상징하며 이것을 중심으로 지난 추억을 상징하는 방향성 있는 각각의 물방울 형태를 긴밀하게 위치시켜 전체적인 형태를 구성하였다. 머리카락이 형성하는 형태를 위와 같이 구성 함으로써 그리움을 극복하고자 추억을 되뇌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림 26>의 장신구로 제작할 때 연보라 빛의 칠보를 사용하여 아련한 그리움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림 27> 동경, 종이에 펜



<그림 28> 동경, 순은, 정은

<그림 27>은 자신이 만든 조각상과 사랑에 빠진 피그말리온의 이야기¹⁴⁾를 연구자의 생각을 통해 글로 재해석한 후

13) 강신주, 「철학이 필요한 시간」, 시계절, 2011, p.5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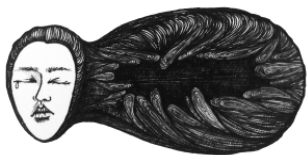
14) 진중권, 「미학 오딧세이」, 휴머니스트, 1994, p.53 참조

드로잉으로 표현하였다. 이야기는 조각상과의 짝사랑에서 시작된 피그말리온 내면의 사모와 동경의 감정들이 아프로디테를 감동시킬 만큼 간절하고 애뜻한 감정으로 깊어지는 심경의 변화를 담고 있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다. 이야기 속의 간절한 짝사랑은 드로잉의 모티브가 되어 내면에 커져가는 사모의 감정으로 인해 행복하고도 슬픈 인간의 모습으로 그려내고자 하였다. 머리카락에 말풍선의 이미지를 적용하여 전체적으로 꿈을 꾸는 듯 짝사랑에 빠진 인간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림 29> 동경 착용 모습

전체적인 말풍선의 이미지는 <그림 28>의 목걸이로 제작되면서 목걸이 줄 부분이 되었으며 하나의 커다란 머리 모양으로 보일 수 있도록 반 입체의 형태로 제작하였다. 또한 황화칼륨착색 시 온도차에 의한 색감 변화를 응용하여 머리카락의 어두운 색감을 점차 따듯한 황색 계열로 변화시켜 색의 변화를 통해서 감정의 깊어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림 30> 눈물 나면 울어, 종이에 펜



<그림 31> 눈물 나면 울어, 손은, 정은, 폴리머 클레이, 큐빅 지르코니아



<그림 32, 33> 눈물 나면 울어 착용 모습

<그림 30>은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슬픈 감정과 함께 때때로 찾아오는 울고 싶어지는 순간을 모티브로 하였다. 슬픔을 홀로 참아내는 현대인의 고독한 심정은 얼굴 표정에서 머리카락으로 전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슬픔과 서러움의

감정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림 31>은 <그림 30>을 바탕으로 제작한 브로치로써 감정이 전이되는 매개체인 머리카락의 끝자락을 눈물 모양으로 형태를 변이시키고 푸른 계열의 투명 유리 물감으로 색감의 변화를 주어 울고 있는 내면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얼굴이 있는 면에 브로치의 핀 장식을 달아 <그림 32, 33>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누군가 착용하였을 때 착용자의 품에서 슬픈 내면이 위로받는 상황이 설정될 수 있도록 의도 하였다.

3.3. 내면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머리카락

옛말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듯이 인간의 내면 심리와 머릿속 생각은 인간의 의도 없이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속의 진실을 알기는 쉽지 않으나 때때로 의도된 표정과 행위에 의해 간접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행위로서의 표현방법 중 머리모양(헤어스타일)을 통한 내면의 표출은 간편할 뿐 아니라 직관적인 의미전달 또한 가능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쉽게 활용 되어 왔다. 인간은 머리카락을 손질하는 것을 자신의 개성과 감정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고 완성된 머리모양은 그 인간의 정체성을 온전히 담는다.



<그림 34> 꼬리 아홉 개 달린, 종이에 펜



<그림 35> 꼬리 아홉 개 달린, 손은, 정은

현대 인간은 남과는 다른 특별한 개성을 가졌거나 한 가지 이상의 다양한 매력을 지닐수록 가치를 인정받으며 이것은 전반적인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한 잣대로 작용된다. 특히 현대 여성의 경우 셰리 아곱(Sherry Argov)의 인문학 저서¹⁵⁾에 쓰여 있듯 여우같은 다양한 매력을 바탕으로 여성의 내성을 부정적인 의미 이상의 단어로 끌어올렸다. <그림 34>는 이러한 여우같은 현대 여성의 처세술로서의 내성을 여우의 아홉 개의 꼬리에 빗대어 머리카락의 이미지에 투영시킨 드로잉이다. <그림 35>는 드로잉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제작한 반지이며 여기에서 머리카락은 아홉 갈래로 나뉘어 각자의 성격대로 뻗어나가 자신의 내

15) 셰리 아곱, 「남자는 왜 여우같은 여자를 좋아할까 2」, 나선숙 역, 명진출판사, 2006, p.5 참조

송조차 개성으로 승화 시켜 원하는 것을 얻고야 마는 현대 여성의 주체적이며 당당한 자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그림 36> 걱정이 산더미,
종이에 펜



<그림 37> 걱정이 산더미,
순은, 정은

현대의 인간은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성장 할수록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감추도록 암묵적으로 교육받으며 이것은 현대인의 감정표현을 자유롭지 못하고 소극적인 표현만이 가능하도록 변하게 하였다. 특히 걱정과 근심 같은 비관적이며 우울한 내면 생각들은 부정적이라는 관념 아래 더욱 감추고 참아내도록 강요당해왔다. <그림 36>은 이렇게 표출되지 못한 걱정과 근심 같은 부정적인 내면이 해소되지 못하고 숨겨져 축적되고 결국에는 더 큰 근심이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드로잉이다. <그림 37>은 이를 바탕으로 제작한 반지이며 걱정이란 부정적인 생각이 산더미처럼 쌓여 감을 이미지화하기 위해 바다 바위 위 따개비가 늘어나는 현상에 착안하여 디자인 하였다.

4. 결론

본 연구는 생활 속에 가깝게 자리하며 신비로운 상징성을 지니고 있지만 가능성에 비해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머리카락과 형태를 현대장신구의 장르 중 내러티브 장신구의 소재로써 적용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머리카락이 함축하는 역사적 의의와 예술작품 속에 표현된 머리카락의 의미를 분석하였으며 장신구에 적용된 머리카락의 사례를 통하여 머리카락이 갖는 전체적인 의미를 고찰 하였다. 머리카락과 그 모양은 시대의 정서를 대변하며 인간개인의 내면을 드러내는 도구로써 예술가들에게 작품의 모티브가 되어왔다. 장신구에 적용된 머리카락은 인간 내면의 이야기를 전하는 색다른 통로가 되기도 한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한 부분의 이야기도 머리카락이 표현하는 자유로운 형태에 투영 되면 보다 강력한 상징성으로 표현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제작된 머리카락의 이미지를 응용한 내러티브 장신구들은 먼저 일상적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어 제작되었다. 이때에 일상적 이야기는 인간의 일상

중 기본적인 행위인 목욕과 사회생활에서 출발하며 일상적 이야기는 인간의 무의식적인 내면을 자연스럽게 표현한다.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머리카락과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는 머리카락의 형태를 중심으로 제작한 장신구들은 추억과 사랑, 슬픔, 욕망, 걱정과 같은 보다 풍부한 이야기와 함께 인간 내면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내러티브 장신구의 소재로써 머리카락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금속공예 표면 장식기법 중 세밀한 표현과 묘사가 가능한 필리그리 기법을 사용하여 순은을 기본 재료로 제작하였다. 머리카락과 더불어 내면의 표현에 보조적 역할을 하는 얼굴은 폴리머 클레이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본 연구는 머리카락과 그 형태가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를 바탕으로 장신구의 소재로써 머리카락과 그 형태를 적절히 적용시켜 현대장신구 흐름에 맞는 내러티브 장신구로 디자인 한 것에 의의가 있다.

장신구는 예로부터 착용자의 직업, 신분, 욕망 등을 간접적으로 표출하며 인간의 피부와도 가장 밀접하게 위치하는 인간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생활 디자인의 하나 로써 인간의 중요한 표현수단이 되어왔다. 현대장신구의 발전으로 착용자들은 보다 많은 의미와 이야기를 장신구에 담아 착용하게 되었고, 내러티브 장신구 장르를 통하여 좀 더 깊은 인간의 내면까지 표현 할 수 있게 되었다. 내러티브 장신구는 작가를 비롯한 착용자의 다양하고 특별한 내면의 성찰과 표현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는 내면 생각을 보다 잘 전달 할 수 있는 매개체로써 다양한 소재의 탐구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깝게 접할 수 있는 머리카락이 만들어내는 매력적인 형태들과 이야기는 신화와 회화작품의 주제와 소재가 되기도 하며 장신구에 활용되어 인간 내면의 이야기를 전하는 색다른 통로가 되기도 한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한 부분의 이야기도 머리카락이 표현하는 자유로운 형태에 투영 되면 보다 강력한 상징성으로 인간 내면심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새로운 내러티브 장신구의 소재의 탐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장신구의 흐름 속에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한 다양한 활용 가능성과 상징성을 지닌 머리카락은 충분히 매력적인 소재로 적용 될 수 있으며 적극적인 활용과 연구를 통해 더욱 다양한 장신구 디자인에 적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강신주, 「철학이 필요한 시간」, 사계절, 2011
 라사라교육개발원, 「복식대사전」, 라사라, 1996,
 마리 크리스틴 오주, 「머리카락」, 한용택 옮김, 시공사, 2005
 세리 야곱 (나선숙 역), 「남자는 왜 여우같은 여자를 좋아할까 2」, 명진출판사, 2006

전용일, 「Ornament and Illusion - Spectrum of Contemporary Jewelry」, 국립현대미술관, 2013
전용일, 「금속공예기법」, 미술문화, 2006
진중권, 「미학 오딧세이 I」, 휴머니스트, 1994
Brett, Mary, 「Fashionable Mourning Jewelry, Clothing, & Customs」, Schiffer Pub, 2007
J.스티븐 랭, 「바이블 키워드」, 남경태 옮김, 들녘, 2007
김연화 「나선형이 지닌 조형의구조적 법칙성과 형상 특징」, 한국디자인 포럼 Vol. 30,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2011
「승가기획_식발」, 만불신문, 2005.